

남원시,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빛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일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남원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는 △전통과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신성장 일자리 창출 △남원 주력 일자리 기반 강화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과 농촌일자리 안정망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국악 중심 남원 K-컬처 슷 조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원시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일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8,87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11.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64세 이하 고용률은 7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64세 이하

여성 고용률 증가율은 전년 대비 4.7%, 청년 고용률은 48.6%를 기록해 두 지표 모두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여름 휴가철 오싹한 이벤트

31일까지 경품 이벤트 진행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기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무더위를 짝 날려줄 ‘여름 휴가철 오싹한 이벤트’를 전격 진행하며,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풍성한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임실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행운에 도전할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을 포털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참여 가능하다.

군은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후 추첨을 거쳐 총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첨자에게는 ‘얼음빙수 교환권’(50명)과 ‘커피 모바일금액권 5천원권’(50명) 등 인기 여름 디지털 경품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확보 총력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농약 방제 작업이 집중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농가 지도 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해충 방제가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



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동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제 관리에 나선

방침이다.

순창군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375ha에 달한다. 이에 군은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과정에서 농약이 인근 친환경 재배지역으로 날아드는 비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지와 관행 농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친환경 재배단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용 깃발 1,900여 개를 농가에 배부했다. 이를 통해 드론 방제 작업자가 친환경 재배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방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추석맞이 ‘공감마켓’ 본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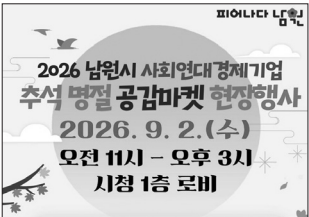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 확대·공공구매 활성화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이하 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감마켓’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마켓은 관내 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과 공공기관에 알리고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우수 제품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해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착한 소비를 끌어낼 계획이다.

사전 주문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관내 기업이 정성껏 준비한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다채롭게 선보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명절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과 공공기관은 ‘남원시사회적경제지원팀’ 블로그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상세 제품 목록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사전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 2일에는 참여 기업의 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현장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상생을 다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내 공공기관의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해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온열질환 예방 선제 총력 대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한낮 낮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온열질환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는 관내 의료기관 및 남원시 폭염TF팀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환자 상태 파악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 인력 40명을 적극 활



용해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보 시에는 낮 시간대는발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며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옥천장학회, 202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열려

순창군이 지난 18일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 주관으로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극장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입시전문가인 김영일교육컨설팅 심형섭 본부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에 따른 학업관리 방



향 △2028학년도 수능 및 대학전형의 주요 변화 △지역의사제 관련 입시환경과 진로 선택 시 고려사항 △농어촌 전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시 준비 방법 △학내별 학습전략 등이 다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제10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성료

순창군이 전국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의 열정과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팔덕다목적구장 등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가 정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와 대회 인지도가 높아지며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전국 127개 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 등 2,900여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다.

대회 기간 2,9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순창에 머물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선수단과 가족들이 지역에 머물며 숙박과 식사, 관광 등을 함께 하면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건강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관리 강화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폭염 대비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관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 인력이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점검하고, 폭염 예방수칙 안내 문자 등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가정과 관내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을 찾아가 △충분한 수분 섭취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암·혈암 등 기초검사와 맞춤형 건강상담을 병행하고,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